

북한개발소식

2026 JUL

07

통권 249호

이달의 주제

중국, 러시아 선교 현장의
도전과 북한선교

탈북민 수기

탈북민 수기 : 김정직 목사 (제 7화)

북한뉴스

북중 정상회담 개최... 전략협력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北비핵화 언급은 없어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중국, 러시아 선교 현장의 도전과 북한선교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6 JUL

이달의 주제 :

중국, 러시아 선교 현장의 도전과 북한선교

- 권두칼럼 **01** 중국, 러시아 선교 현장의 도전과 북한선교
- 칼럼_1 **09** 김종구 _ 통제는 일상화되나 복음은 전진하리라
- 칼럼_2 **15** 김다니엘 _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정치와 종교정책
- 인터뷰 **24** 러시아 선교 현장과 북한선교
- 탈북민 수기 **30** 탈북민 수기: 김정직 목사 (제 7화)
- 서평 **35**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 그의 정치와 전략
- 북한뉴스 **37** 북중 정상회담 개최... 전략협력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北비핵화 언급은 없어 외
- 북한 기도 제목 **40** 선교 현장이 변화하는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외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선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직접적으로 북한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적 특성상 대부분의 북한 관련 사역은 북한 인접 국가에서 이루어진다. 자연스럽게 해외 북한선교 현장은 선교 대상인 북한의 상황과 함께 사역자가 체류하는 체류 국가의 정책, 그리고 체류국과 북한, 한국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보여지는 북한 인접 국가들의 정책과 외교 관계 변화가 심상치 않다. 먼저 외교적으로는 최근 북중, 북러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반면 한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다. 2017년 사드 사태로 인해 중국의 많은 한인 교회 사역자 및 선교사가 추방당했던 사례 등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외교적 불안 요소는 선교 현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체류 국가의 정책도 선교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종교 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외부로부터의 종교적 침투를 배척하는 노선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화된 신앙을 강조하며 허가되지 않은 종교활동이나 외부로부터의 종교적 영향력을 적극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기독교의 한 갈래인 정교회로 국가 종교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러시아와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와의 불편한 관계와 맞물려 개신교 선교 활동을 서방의 침투로 간주하고 억압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종교 정책은 북한 선교 사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북한 선교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 러시아의 선교 환경을 진단하고, 북한 선교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점,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민하며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환경적 도전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선교 현장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먼저 중국의 경우 기독교 활동에 대한 통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신종교사무조례를 공포, 시행하여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한데 이어 지속적으로 종교 관련 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다. 2020년에는 ‘종교단체관리방법’ 행정조치로 모든 종교단체가 정부 등록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였다. 2021년에는 ‘종교교직원관리방법’ 행정조치로 모든 종교지도자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설교, 목회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조치’는 인터넷 상에서 종교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서비스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교회 공식 사이트만이 아닌 개인 블로그나 SNS 등 광범위한 영역이 포함된다. 같은 해 공포된 ‘종교활동장소 재무관리방법’은 교회 재정을 국가 감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특별히 해외 후원금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종교활동 통제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중국은 ‘외국인종교활동관리규정실시세칙’을 기존 22개 조항에서 38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 개정하여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련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추가하여 지난해(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¹⁾

이와 같은 각종 종교 관련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직접적인 단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2025년) 10월 중국은 불법 경영과 온라인 사용 등을 명분으로 가정교회인 중국 시온교회 목회자와 성도 30명을 체포했다. 이 중 12명은 한 달여 만에 석방되었고, 9명은 8개월 간 구금 끝에 석방되었지만, 나머지 9명은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²⁾. 2007년 설립된 시온 교회는 2018년 무렵부터 당국의 압박 속에서 모임 장소 확보 등에 어려움

을 겪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는데³⁾, 당국은 이를 온라인상에서의 허가되지 않은 불법 종교 활동으로 보고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한 것이다. 이 외에도 올 6월 14일 청두의 이른비언약 교회가 한 호텔 회의실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던 중 현장에 공간이 들이닥쳐 성도들을 연행하였다. 조사를 받은 성도들은 대부분 밤늦게 풀려났지만, 교회를 이끄는 두 장로는 행정구류 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구금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⁴⁾

이러한 종교활동 관련 규제와 함께 중국 내 탈북여성에 대한 강화된 통제는 북한 선교 사역의 한 축을 위협하고 있다. 2025년 11월,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중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 체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재중 탈북민을 대상으로 식별-등록-통제의 3단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0년쯤부터 지역公安 파출소에서 확인된 탈북 여성들의 지문, 안면 정보, 혈액 등 광범위한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베트남·라오스 등에서 온 미등록 외국인들도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긴 하지만, 이들에게는 얼굴 사진과 지문 정도만 수집하는 반면 탈북민에게는 홍채와 목소리, 체중 등 민감한 생체 정보까지 채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후 관리 과정에서 위챗·콰이쇼우 등 스마트폰 앱으로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GPS(위성항법시스템)로 실시간 위치가 식별되는 카메라 앱을 설치하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⁵⁾

러시아의 경우도 중국과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모습이다. 먼저 러시아 내 종교, 선교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종교비자를 발급받아 사역할 수 있는 국가이지만, 2016년 야로바야법(Yarovaya Law)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발의된 법이지만, 종교시설로 인정된 공식 장소 이외의 모든 곳에서 설교, 기도, 포교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반(反)선교사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2025년 2월 러시아는 법을 개정해 경찰이 외국인의 불법 선교 활동 혐의에



〈중국 시온교회 담임 조선족 김명일(중국어 발음 진밍르, 영어명 Ezra Jin)목사〉

1) 쉰빈, “법령이라는 ‘창’을 통해 본 중국”, 중국을 주께로 2026년 2월호 (통권 282호), <http://www.chinaton-god.com/main/z2s_c_v.php?no=5793&ctg_no=282&div=2>

2) 중국 시온교회 성도 9명 석방... 지도자 9명은 ‘불법 경영·사기’ 혐의 기소 절차, 크리스찬타임스 (2026.06.22.), <<https://www.kctusa.org/news/articleView.html?idxno=81182>>

3) “중국서 체포된 ‘시온교회’ 목사들 최고 3년형 가능성”, 연합뉴스 (2025.11.19.),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9159500009>>

4) 중국, 이른비언약교회 예배 급습... “가정교회 탄압에 기도 절실”, 아이굿뉴스 (2026.06.17.),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3777>>

5) 中 公安 손바닥 위 놓인 탈북민... 지문·혈액·홍채 정보 몽땅 수집, 조선일보 (2025.11.13.),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11/13/GAXNNGXNIVFFVD22AFMMVJWFVE/>



〈백광순 선교사가 구금되어 있는 모스크바의 레포르토보 구치소〉

대해 법원의 재판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벌금 부과와 추방 명령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⁶⁾

이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직접적으로 한인 선교사에 대한 체포 및 억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2024년 1월 백광순 선교사가 간첩 혐의로 체포당했다.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첫 사례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백광순 선교사는 2020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행사 및 비즈니스를 하며 현지 북한 벌목공 등에게 의약품, 의류 등 생필품을 지원해왔으며 탈북민 구출 활동에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⁷⁾ 백 선교사가 지부장으로 있던 ‘지구촌사랑의쌀나눔재단’에서는 백 선교사는 인도적 활동을 해왔으며 간첩 혐의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했다.⁸⁾ 백 선교사는 억류 2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재판을 받지 못하고 구금된 상태이다.

러시아는 올 1월에는 박태연 선교사를 억류했다. 박 선교사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소속으로 1993년 러시아에 입국한 이래 하바롭스크에서 어린이 사역에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선교사는 은퇴 귀국을 일주일 앞둔 지난 1월 15일 러시아 하바롭스크 이민자 구금 시설에 수감됐다.⁹⁾ 제기된 혐의는 총 3건으로, 한국인의 러시아 입국을 도왔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한 불법 이주 조직 관련 사안이다. 세 가지 혐의 가운데 두 건은 각각 최대 5년, 나머지는 최대 7년 형이 적용될 수 있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7년형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¹⁰⁾ 이뿐 아니라 현지 매체 보도 내용과 교육당국의 내부 문건 내용 등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이 종교활동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이 공식 재판 절차와는 별개로 국영 방송과 교육부 공문을 통해 박 씨가 고아원 아동을 대상으로 ‘세뇌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씨가 미국 계열 종교단체 소속

이라는 점 등을 부각하며 박 선교사가 외국 종교단체와 연계해 러시아 아동들에게 한국과 미국식 개신교 신앙을 주입하고 더 나아가 한국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¹¹⁾

북한과 주변국의 밀착 관계와 그 영향

중국과 러시아의 악화된 북한 선교 환경에는 밀접해진 북중, 북러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러우 전쟁 파병 등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기 이전에는, 한인 선교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체포나 억류 활동을 벌이지 않았다. 선교사들의 활동이 주로 인도적 차원의 도움이었고, 구출 활동도 주로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 선교사의 활동은 한국행을 택한 탈북자들이 난민 구호소로 가기 전 임시 보호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설사 이러한 활동이 발각되더라도 벌금이나 추방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보통이었다.¹²⁾ 그렇지만 러시아 당국의 태도는 북러 밀착 관계 형성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다. 특히 선교사의 억류 이유 중 하나로 탈북자 구출 활동 참여가 거론되는데, 북한이 불편해하는 탈북자 구출 활동을 통제, 압박하는, 북한에게 주는 러시아의 ‘선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¹³⁾ 동맹에 준하는 우방국이자 러우 전쟁의 동지로서 북한을 우대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이 체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탈북 현상’을 막는데 러시아가 호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잇따른 한인 선교사 억류가 북한뿐 아니라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외교가의 분석도 있다. 한러 관계 악화에 따른 일종의 인질외교의 일환이라는 것이다.¹⁴⁾ 러시아는 2022년 한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자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중국은 그간 북한과의 관계가 일부 소원한 듯 보이기도 했지만, 지난해 중국 전승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함으로써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더니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급속하게 회복되는 모양새이다. 이런 와중에 현장에서는

6) 탈북민 지원 한국 선교사에 간첩혐의, 러시아의 인질 외교?, 중앙일보 (2024.03.13.), <<https://www.joonggang.co.kr/article/25234750>>

7) 러서 간첩혐의 백광순씨... 北벌목공 6명 탈출 도와, 시사주간 (2024.03.13.), <<https://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43>>

8) [단독] 이선구 지구촌나눔재단 이사장 “백광순 선교사는 한·러 외교의 역올한 희생양”, 시사저널 (2024.08.13.),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690>>

9) “증거도 없이 17년형”...러시아 억류 선교사 석방 청원, 국민일보 (2026.04.22.),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717404>>

10) 러시아 억류 박태연 선교사 17년형 가능성...‘종교적 동기 기소’ 의혹, 크리스천헤럴드 (2026.03.31.), <https://www.cheraldus.com/bbs/board.php?bo_table=world_news&wr_id=109>

11) 러 대사관에 박태연 선교사 석방 청원... “세뇌 혐의는 조작”, 기독교일보 (2026.04.22.),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58938#share>>

12) 구출 단체들 “러시아 내 탈북민 구출·지원 적신표”, 자유아시아방송(RFA) (2024.03.15.),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defectorrescue-03152024091136.html>

13) 탈북민 지원 한국 선교사에 간첩혐의, 러시아의 인질 외교?, 중앙일보 (2024.03.13.), <<https://www.joonggang.co.kr/article/25234750>>

14) 러시아의 선교사 구금, 인질외교의 서막인가, 외교신문 (2026.02.03.), <<https://faj.co.kr/View.aspx?No=396334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내 리설주 여사가 지난 6월 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종교적 성격을 띠고 북중 국경을 방문하는 여행팀에 대한 신고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훈훈한 양국 간 무드를 해치지 않기 위해, 중국이 북한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종교활동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여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중을 엿볼 수 있다. 게다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법 집행’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가 발표되었

는데, 이는 치안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뜻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협력 분야에 탈북자 이슈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⁵⁾ 이는 앞으로 중국이 더욱 북한 친화적인 통제 및 적극적인 공안 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중국, 러시아에서 보이는 북한 선교 환경에 대한 위협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북중, 북러 관계의 밀착이 장기적인 시계열의 것으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러시아의 경우 북한의 러우 전쟁 파병 이후 이어진 군사 분야 협력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6년 들어 양국이 군사 협력을 포함한 5개년 협력 계획(2027~2031년)을 논의하고, 전쟁에서 전사한 북한군을 기리는 추모 행사와 기념비 건립 등을 통해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는 상징성을 강조하는 등 양국 관계가 더욱 제도화되고 장기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¹⁶⁾

중국과 북한 관계 역시 지난해 10월 중국 전승절 기념식 및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6월 8~9일 시진핑의 평양 방북을 통해 훈풍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방 및 교류 확대를 비롯하여 외교·법집행·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발전 전략 연계를 강화하고 무역·농업·건설·과학기술·보건의료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 발표했다.¹⁷⁾ 양국 관계가 일시적인 관계 개선을 넘어 장기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5) [한반도 포커스] 법집행 협력은 양날의 칼...북중 3+3 개최될까, SBS 뉴스 (2026.06.1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06582>

16) 이상준 (202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관계 진행 현황”,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2026-17 (2026.06.11.), pp. 13.

17) 시진핑 “북중, 외교·법·군대 교류 강화해야...역사적 출발점”(종합2보), 연합뉴스 (2026.06.08.),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8173952083>>

우리의 기도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은 우리에게 여러 선교적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먼저는 해외 북한 선교 사역 현장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국가 간의 관계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적 변화는 우리에게 기존의 사역 방식의 안전성 등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종교를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편입하였고, 인터넷은 사상 관리의 공간이 되었으며, 외국과의 연결은 더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더욱 철저한 디지털 통제망을 구축하였다. 러시아 역시 선교사 활동에 대한 통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기조 속에서, 기존에는 문제로 삼지 않았던 선교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직접적인 선교사 억류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선교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협을 정확히 평가하고, 위험도가 급격하게 상승했거나 과도한 위협을 동반하는 사역 방식을 잘 분별해야 한다. 물론 북한 선교 사역을 어떠한 위험 없이 감당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더라도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장의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지혜로운 방법을 찾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둘째로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해외 북한 선교 사역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발 인적 왕래가 거의 중단되면서 북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과 주변국 간의 인적 교류 확대는 선교에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장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면 선교의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자.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선교 현장의 안정과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가 간 외교 관계는 대결과 반목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리하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일종의 신냉전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인 선교사들의 체류와 사역,

특히 북한 관련 사역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중국과는 밀접한 경제적 관계가 있으며, 러시아와도 러우 전쟁 이전에는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해 왔다.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두 국가를 향한 한국의 레버리지가 상실된다면, 남북 관계 및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북한의 남한 적대시 전략에 대응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선교사의 안전을 위해서도 한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북한의 전략에 대응한 지혜로운 외교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의사결정자들과 외교 실무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해지도록, 그리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가 증진되고 그 속에서 선교사의 안전이 증진되고 선교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칼럼 1

통제는 일상화되나 복음은 전진하리라

김종구 선교사 (BM 선교연구원장, Ph. D.)

글을 시작하며

최근 중국을 경험한 선교사들과 중국교회 지도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리는 말이 있다. ‘중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중국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사실 중국공산당은 건국 이후 종교를 국가의 관리 대상 영역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종교 정책은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사회 통제 체계의 일부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2018년 개정된 「종교사무조례」를 시작으로 「종교활동장소 관리방법」,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외국인의 중국 경내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 개정 「반간첩법」 등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중국의 종교 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가의 통제 하에서, 오늘날 중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변화는 단순히 박해가 심화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종교가 국가안보 체계 안으로 편입되었고, 교회와 선교활동 전반이 국가의 감독과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통제가 점차 구체적인 법과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은 최근 필자가 최근에 여러 경로를 통해 만난 선교사들과 중국교회 지도자들의 증언, 그리고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례들을 토대로 오늘날 중국교회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중국 선교가 고민해야 할 과제와 중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나누고자 한다.

외국인 통제의 강화와 입국 거부 의 일상화

한때 중국 방문은 비교적 자유로운 일이었다. 최근에는 한·중 간 비자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중국 여행이 더욱 편리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변화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은 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의정부의 한 교회 청년들은 백두산 여행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선교사도 아니었고, 과거 중국에서 추방되거나 문제가 된 이력도 없었다. 그러나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었다. 정확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교회 소속 청년들이라는 점 때문에 단기선교 목적의 방문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에서 교육 관련 활동을 하며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한 부부가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공안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두세 차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였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두 분은 중국 정부로부터 입국이 거부된 상태입니다.”

갑작스럽게 항공사 직원을 통해 중국 입국 금지 사실을 통보받은 것이다. 어쩌면 고향보다 더 오랜 세월 살아온 땅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중국 공항에서 강제 송환을 당하지 않고 한국에서 미리 알게 된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

중국에서 사역했던 한 선교사 가정의 사례도 있다. 남편은 과거 공안의 조사를 받은 뒤 8년 전 사실상 비자발적으로 귀국하였다. 최근에 아내와 딸이 중국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딸은 아무 문제 없이 입국한 반면 아내는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었다. 결국 그는 즉시 귀국 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최근 나타나는 이러한 입국 제한은 단순한 비자 행정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이력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관리 체계 속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 시행된 「외국인의 중국 경내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해당 규정은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정부 감독 아래 두고 있으며, 중국인의 종교활동 조직, 지도자 양성, 종교기관 운영 참여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은 중국 종교의 ‘독립자주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종교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개정된 「반간첩법」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였다.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교류 활동이나 교육 활동까지도 국가안보와 연결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동 공간을 눈에 띄게 축소시키고 있다.

가정교회에 대한 압박과 새로운 통제 방식

중국 가정교회에 대한 압박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특징은 종교적 이유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경제범죄나 행정법규 위반과 같은 명목을 활용하여 통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두(成都)의 이른비언약교회(秋雨圣约教会) 왕이(王怡) 목사 사건이다. 왕이 목사는 국가 정권 전복 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중국 도시가정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후 중국 정부는 대형 가정교회와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더욱 강화해 왔다.

코로나19 이전까지 필자와 교류가 있었던 동북지역의 한 여성 교회 지도자 역시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공안은 교회의 여러 동역자를 체포하였고, 일부는 장기간 구금되었다. 그중 한 사람은 두 번째 체포된 이후 1년 가까이 구금된 상태에 있다. 공식적으로는 헌금 관리, 재정 운영, 부동산 관련 문제가 적용되었지만, 현지 교회 지도자들은 이를 종교활동에 대한 압박으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시행된 「종교활동장소 재정관리 규정」과 「종교활동장소 관리방법」은 종교단체의 재정과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감독 권한을 크게 강화하였다. 특히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들은 언제든지 재정 문제나 장소 사용 문제를 이유로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

2025년에는 베이징 시온교회(Zion Church) 계열

〈이른비언약교회의 왕이 목사와 장롱 사모 (사진=ChinaAid)〉



지도자들에 대한 대규모 단속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도 하였다. 일부 지도자들은 온라인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조사와 구금을 경험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의 통제가 오프라인 공간을 넘어 디지털 공간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북3성과 소수민족 지역의 현실

한국교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지역 가운데 하나는 동북3성이다. 조선족 교회와 한인 선교사들의 사역이 오랫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동북지역의 분위기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지도자들이 구금되거나, 교회가 폐쇄된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북한 접경지역과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는 종교 문제가 국가안보 및 국경관리 문제와 연결되어 관리되고 있다. 외국인과 관련된 종교활동, 지도자 훈련, 청소년 사역 등에 대한 감시 역시 한층 강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자가 받은 한 기도 편지에는 소수민족 지역에서 사역하던 목회자가 해외에서 중국인 교회 지도자들의 선교 훈련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4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의 가족은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으며, 초등학교생인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종교를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전선 전략의 일부이자 민족 통합과 국가 안정을 위한 요소로 인식한다. 특히 신장, 티베트, 감숙성, 청해성 등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종교와 민족 문제가 결합되어 더욱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종교 관련 법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해외 세력의 침투 방지’라는 표현도 이러한 정책 방향을 잘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외부와 연결된 종교활동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교 정책 역시 점점 더 강한 통제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음 세대를 둘러싼 영적 전쟁

오늘날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이다. 최근 서울에서 만난 한 중국 도시가정교회 지도자는 현재 중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어린 세대의 신앙 문제를 언급하였다.

“어른들의 신앙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현재 중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이 함축되어 있었다.

중국은 18세 이하인 미성년자의 종교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성년자의 종교활동 참여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 종교교육과 종교 훈련도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한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초등학교 자녀를 주일예배에 데리고 갔다가 행정 처분과 벌금을 받았다고 들려주었다. 과거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던 공간이었던 주일학교와 청소년 모임은 많은 지역에서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또한, 베이징 외곽에서 사역 중인 한 목회자는 공간이 초등학교생들에게 접근하여 종교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하였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점차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교회로 하여금 가정 중심의 신앙 교육을 다시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공개적인 종교교육이 어려워질수록 부모가 신앙 전수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있으며, 가정이 다시 신앙 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도시가정교회의 변화

신종교사무조례 시행 이후 중국 도시가정교회는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 규모의 공개적(공식적이고 공인된 것은 아님) 예배가 가능하였고, 많은 교회가 이러한 성장 모델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도시가정교회는 소규모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라기보다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의 결과이다. 법적·물리적 제약이 강화되면서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대신 여러 가정과 소그룹으로 나누어 모이는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목할 점은 많은 교회 지도자가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후퇴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모 성(省)에서 사역하는 한 중국교회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다.

“큰 교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가정교회



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교회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일부 교회가 대형화와 조직화에 집중하였다면, 오늘날의 가정교회는 더욱 긴밀한 공동체성과 제자 훈련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외형적으로 보면 중국교회는 국가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형태를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그

러나 내면적으로는 초대교회적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박해가 반드시 교회의 쇠퇴를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박해는 교회를 더욱 토착화시키고 있으며, 지도자 중심 구조에서 제자 중심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날 중국교회는 분명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 입국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외국인의 종교활동은 제한되고 있다. 가정교회는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며, 소수민족 지역은 더욱 강한 통제 아래 놓여 있다.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 역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박해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해 왔다. 1949년 공산화 이후에도, 문화대혁명의 시기에도, 수많은 탄압과 통제의 시대에도 중국교회는 살아남았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더욱 깊어졌고 더욱 강해졌다.

오늘날 중국교회는 과거보다 외형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더욱 깊은 영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더욱 견고한 토착 지도력을 형성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선교 방식을 회복하는 일이 아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국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하는 일이다.

중국 선교의 미래는 외부 영향력의 확대에 있지 않다. 오히려 중국교회가 스스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고, 장차 열방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

비록 통제는 일상화되고 있지만, 복음은 광활한 대지 위에서, 15억의 거대한 민족 안에서 여전히 전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중국교회를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 

칼럼 2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정치와 종교정책

김다니엘 (중국 전문가)

1. 중국 정부의 핵심 의제가 된 종교

중국 헌법 제36조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지만, ‘정상적 종교활동’과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적응’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보장된다. 즉 종교는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당-국가’의 관리 대상으로 개념화된다. 2012년 시진핑(習近平) 집권 이후 정책은 전면 전환되었다. 저장(浙江)성 교회 십자가 철거(2014~2016), 신장(新疆) 재교육 시설 운영(2017~2019), 2018년 〈종교사무조례〉 전면 개정, 2022년 온라인 종교활동 규제는 개혁개방기의 상대적 관용에서 법제·조직·기술의 복합 통제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이 전략의 핵심 개념이 ‘종교중국화(宗教中國化)’다. 2015년 시진핑이 제기한 이 개념은 교리·조직·의례·온라인 활동 전반을 사회주의 핵심가치관과 중화민족 서사 하에 재구성하는 포괄적 지배 전략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당국가(The Socialist Party-State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중국 공산당은 레닌주의 정당 모델에 기반하되 당과 국가가 결합한 ‘정당국가’ 구조를 형성한다. 시진핑 체제에서는 헌법 전문에 ‘당의 전면적 영도’가 명

시되고 절대 권위가 재확인되었다. 2018년 기구 개혁으로 국가종교사무국이 통일전선공작부에 편입되면서 종교정책은 정부 행정에서 당의 정치공작으로 재정의되었다.

2.2 디지털 권위주의(Digital Authoritarianism)

중국은 만리방화벽(防火長城, Great Firewall), 디지털 감시 및 추적시스템(天網工程, Skynet Project), 안면 인식,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사회 관리의 핵심 도구로 도입했다. 종교 영역에서는 ‘스마트 종교 관리(智慧宗教管理)’로 구현된다. 온라인 예배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애국적·조화로운’ 콘텐츠만 허용되는 방식—선별적 담론 형성—으로 작동한다. 전통적 물리력 의존 통제에서 효율성을 담보하는 디지털 관리로 전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3 흡수적 권위주의(Absorptive Authoritarianism) : 세 가지 메커니즘

시진핑 시대 종교정책의 핵심은 배제 대신 ‘통일전선’ 전략을 통해 종교를 관리 가능한 사회 세력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세 메커니즘이 하나의 폐쇄적 고리를 이룬다.

- 규범적 포섭(Normative Co-optation): 법령으로 ‘합법적 활동’의 경계를 정의하고, 그 안에서만 선별적으로 허용. 법의 경계는 당국이 자의적으로 조정함
 - 조직적 침투(Organizational Penetration): 통일전선 및 당 조직이 종교단체 내부에 침투해 인사·교육·평가 통제. 종교단체 지도부는 형식상 종교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당의 지시를 받음
 - 기술적 감시(Technological Surveillance): CCTV·AI·데이터베이스·온라인 필터링으로 종교활동의 시간·장소·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된 자율성(Managed Autonomy)’의 구역에 종교를 가둠
- 흡수적 권위주의 모델의 장점: 지속 가능성(지하화·급진화 방지), 정당성(“법을 집행할 뿐”이라는 수사로 국제 비판 회피), 효율성(종교단체 지도부를 내부 협력자로 활용한 감시 비용 절감).

3. 시기별 정치구조 변화와 종교정책의 전개

3.1 제1기(2012~2017): 권력 집중과 종교정책 기초 공정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총서기로 선출된 후, 반부패 캠페인(“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는다”)을 통해 저우융강(周永康)·보시라이(薄熙來) 등 최고위 간부들이 실각하면서 개인 중심의 권력 구조가 공고화되었다. 2014년 제시한 ‘중국몽(中國夢)’과 ‘총체적 국가안보관(總體國家安全觀)’은 안보의 개념을 군사·영토를 넘어 이념·문화·종교·네트워크 등 11개 영역으로 확장하여, 종교를 ‘이념안보’와 ‘문화안보’의 교차점으로 지정했다.

2015년 시진핑은 중앙통일전선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종교중국화 방향 견지(堅持我國宗教中國化方向)’를 천명했다. 현장 실험도 병행되었다. ‘종교중국화’ 개념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후 선종(禪宗)으로 토착화된 것, 마르크스주의가 마오쩌둥 사상으로 중국화 된 것 등이 선례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의 ‘종교중국화’는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과거의 중국화가 자발적·문화적 융합이었다면, 현재의 중국화는 정치적 명령이자 통제 전략이다. 종교 교리, 의례, 건축, 조직, 교육, 대외 관계 등 모든 측면이 당-국가의 기준에 맞춰 재구성되어야 한다. 2014~2016년 저장성 교회 십자가 최소 1,200~1,700개 철거(종교의 공공적 가시성 제거), 신장에서 2014년 테러 이후 감시 강화 및 ‘그리드 관리(網格化管理)’ 구축이 이루어졌다. 2016년부터 <종교사무조례> 전면 개정이 준비되어, 종교정책이 ‘관리’에서 ‘통제 체계’로 질적 전환을 예비했다.

3.2 제2기(2017~2022): 권력집중 완성과 법제·기술화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이 당장에 삽입되었고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주석 연임 제한이 폐지되었다. 동시에 헌법 제1조에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국가종교사무국은 통일전선부에 완전히 흡수되었다. 종교행정은 ‘국가기구의 사무’가 아니라 ‘당의 정치공작’으로 재정의되었다. 이는 종교가 행정 관리의 대상에서 정치 통제의 대상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1) <종교사무조례>(2018): 관리의 표준화와 법적 강제화

2018년 2월 시행된 개정 <종교사무조례>는 종교활동의 ‘허가-등록-감독-처



〈중국 중남부 장시성의 한 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2017년 기독교 신도 집에서 기존 종교 관련 그림을 떼고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벌' 체계를 확립했다. 제3조는 국가가 종교 관리의 목적을 '불법행위 제지, 극단주의 억제, 해외 세력 침투 저지'에 두도록 명시했다. 이는 종교를 잠재적 위험 요소로 간주하는 안보화(Securitization) 접근이다. 등록을 거부하는 가정교회는 불법집단으로 규정되어 사실상 '교회 폐쇄법'으로 작용한다. 종교단체가 '사회주의 핵심가치 실천'과 '중화문화 발전'에 공식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종교의 사회주의 종속성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었다. 미성년자 출입 엄격히 제한, 예배당 신축 조건 강화, 해외 방문 및 종교학교 운영 금지 등 과거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제한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개정 조례는 종교의 자유를 '국가가 허용하는 한도 내의 자유'로 제한하며, 종교를 사회주의 체제의 한 구성요소로 흡수했다. 이는 종교가 독립적 사회 영역이 아니라 당-국가의 통제 대상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2) 〈종교교직자관리방법〉(2021): 인적 통제의 제도화

2021년 5월 시행된 본 규정은 종교 지도자에 대한 통제를 개인 단위(Person-based Control) 수준으로 세밀화하고, 전국 통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했다. 교직자 관리를 독립된 규정으로 분리하여 강화함으로써, 종교인의 권리와 의무, 활동 규율, 처벌 및 구제 절차, 정보 등록 및 갱신 절차 등 전 영역을 전문화된 행정 통제체계로 편입시켰다. 제3조는 '교직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며 종교중국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종교적 신앙보다 정치적 충성을 우선시하는 국가 이데올로기적 기준을 명시했다. 12자리 코드 체계의 전국 통일 등록번호와 교직자 증서 제도는 교직자의 정체성을 국가 식별·관리 체계에 편입시키는 장치다.

(3)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규정〉(2022): 온라인 공간의 국가화

2022년 3월 시행된 이 규정은 종교의 디지털 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최초의 고도화 법령이다. 이 규정은 네트워크 공간을 기존 오프라인 종교통제 체계의 연장선에서가 아니라, 당-국가 이념을 확산하는 또 하나의 전장(戰場)으로 재정의한다. 이중허가제(종교사무부문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를 도입하였으며, 제16조는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배·법회·미사 등 종교활동을 생방송 하거나 녹화 방송할 수 없다'라고 금지했다. 제17·18조는 온라인 종교교육, 기부·모금, 상품 판매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종교의 정보 생

산-유통-소비 체계 전체가 당-국가의 디지털 통치 구조에 종속되도록 설계했다. 2020~2021년 팬데믹 동안 많은 중국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으나, 2022년 이 규정의 시행으로 모두 불법화되었다. 종교를 독립된 공동체적 실체가 아닌, 국가의 통제 대상 '데이터 객체'로 재구조화하는 법적 시도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미가 더욱 분명하다. 종교는 더 이상 물리적 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흐름(Data Flows) 속에서 국가가 항시적으로 관리하는 객체가 되었다.

(4) 신장·티베트: 극단적 통제의 실험장

제2기 종교정책에서 신장과 티베트는 극단적 통제 모델이 구현되는 실험장이었다. 두 지역은 종교 문제를 단순한 신앙 차원이 아니라, 민족·분리주의·국가 안보 프레임 속에 위치시키는 중국 특유의 정책 기제의 가장 집중적 표현이다. 이러한 정책은 종교·민족 정체성이 결합한 집단에 대한 감시, 재교육, 사찰 통제 등 복합적 통치 전략으로 구체화했다.

신장에서는 2017년 이후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를 통해 위구르족·카자흐족 무슬림 약 80만~120만 명이 비자발적으로 구금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직업 훈련"이라고 규정했으나, 국제 연구자들은 위구르족·카자흐족 등 무슬림 주민들이 비자발적으로 장기간 구금된 사실을 위성 분석·증언·행정문서 등을 통해 보고했다. 다수 연구는 당시 시설 수용 규모를 대략 80만~120만 명 수준으로 추정한다. 수염 기르기, 하잡 착용, 기도, 쿠란 소지 등이 '극단주의 징후'로 분류되었고, 수백 개의 모스크가 철거·개조되었다. '일체화 연합작전 플랫폼(IJOP)'은 주민의 이동·소비·앱 사용·종교활동 패턴을 실시간 분석하는 빅데이터 예측형 감시 시스템이다.

티베트의 주요 통제 구조는 불교 지도자 승계 체계에 대한 국가의 직접 개입이다. 2007년 〈활불 환생 관리방법〉이 환생을 국가 승인 사안으로 규정하여 종교 내부 전통 의례에 국가 권력이 제도적으로 개입하는 모델을 확립했다. 2018년 이후 모든 대형 사찰에 '사찰 관리위원회'와 '당 지부'가 의무 설치되었고, 달라이 라마 사진 소지가 금지되었다. 승려는 정기적으로 '애국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달라이 집단은 분열주의 세력이다", "티베트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다", "시진핑 사상을 학습해야 한다" 등이 포함된다. 교육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하면 승려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3.3 제3기(2022~현재): 장기집권과 통제의 일상화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전례 없는 3연임을 달성했다.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시진핑 측근으로 구성되면서 ‘국가의 당화(黨化)’—당이 곧 국가로, 국가가 곧 당의 행정기구로 기능하는 체제—의 제도적 완결이 이루어졌다.

(1) <중화인민공화국반간첩법>(2023)과 <중화인민공화국애국주의 교육법>(2024)

특히 주목할 것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중화인민공화국반간첩법(中華人民共和國反中間諜法)> 개정이다. 이 법은 간첩 행위를 다섯 가지로 정의한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기존 법안에 사이버 스파이 행위까지 추가했다.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이 시행하거나 타인에게 시행을 교사 혹은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외 기구·조직·개인과 결탁해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서·핵심 정보 인프라 등의 네트워크를 공격·침입·방해·통제·파괴하는 등의 활동을 간첩 행위로 정의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나 이익에 관련된 문건·데이터·자료·물품이 보호 대상으로 규정돼 유출 시에 처벌받는 정보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국가안보 당국의 권한도 강화됐는데, 간첩 행위가 의심되는 인물의 소지품이나 전자기기 등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단속 시스템도 강화했다. 중국 국민이나 조직은 간첩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통보해야 한다. 우편 택배 등 물류업자나 통신업자의 간첩 단속 활동에 대한 기술적 지원도 의무화했다.

문제는 이 법에서 언급된 ‘국가안보’, ‘국가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중국 정부가 규정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 외국인, 외국인과 빈번히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의도와 관계없이 간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간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기 때문에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행정구류와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다.

종교 영역에서도 이 법의 영향은 직접적이다. 해외 종교단체와의 교류, 외국인 선교사와의 접촉, 해외 자금 수령 등이 모두 ‘간첩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특히 기독교 가정교회 목사들이 해외 선교단체와 연락하거나, 해외 신학교에서 교육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국가안보 위협으로 분류될 위험이 커졌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중화인민공화국애국주의교육법(中華人民共和國愛國主義教育法)>은 학생에만 국한되는 법이 아니다. 제22조에 따르면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에서도 애국주의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종교 성직자와 신도들도 국가의식, 국민의식, 법치의식, 애국의식을 갖고 종교와 사회주

의 사회의 상호 적응에 힘써야 한다.

다양한 사회 집단의 특성에 따라 목표가 설정되며 문화 유적지, 박물관, 각종 기념관, 과학기술관, 문화관, 미술관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한다. 중화민족의 발전사를 강조하고 영웅·열사들의 업적과 정신을 소개하는 내용 등은 언론 매체, 문학 및 예술 작품, 정보 네트워크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확산한다. 자국민과 인터넷은 물론 홍콩, 마카오, 해외 화교 교류 등 애국주의 범위는 확대 적용된다.

이는 종교가 애국주의 교육의 대상이자 도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교회나 사찰에서 예배나 법회 전에 애국주의 교육 시간이 배정될 수 있고, 국경일이나 당 창건 기념일에 특별 행사를 조직해야 한다. 종교는 더 이상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당-국가의 이념을 전파하는 공간이 되었다.

(2)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2025)

2025년 5월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中華人民共和國境內外國人宗教活動管理規定實施細則)>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中華人民共和國境內外國人宗教活動管理規定)>을 현 상황에 맞도록 강화한 내용이다. ‘종교 중국화’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는 핵심적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 현(縣)급 단위에서 같은 국적·종교의 시설을 한 곳만 허가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 법규를 베이징,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로 적용하면 현급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구(區) 단위에서 같은 국적의 종교시설 중 한 곳만 허용되고 나머지 시설은 무허가 시설로 제재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구에 몇 개의 한인교회가 있다면 다른 구로 이전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제29조는 외국인의 종교 관련 금지 행위 11가지—중국 종교단체 사무 간섭, 포교, 온라인 불법 종교 활동 등—를 상세히 규정한다. 이는 중국 내 외국인 종교 공동체의 활동 공간을 대폭 축소한다.

(3) <종교교직자인터넷행위규범>(2025): 기술-이념 결합의 완결

2025년 9월 시행된 <종교교직자인터넷행위규범(宗教教職人員互聯網行為規範)>은 종교교직자의 온라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감시하는 규범으로, ‘종교중국화’가 디지털 영역에까지 완전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2022년 <인터넷종교정보서비스관리방법>의 연장선에 있지만, 보다 구체적·정밀한 통제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 규범은 종교교직자의 온라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감시한다. 제8조와 제13조는 국외 종교 세력과의 연결, 온라인 전도, 화상예배, 위챗 설교 등



을 전면 금지한다. 제16조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설교·경전 해석·종교 콘텐츠 제작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하여, 종교 영역에 AI 금지선(AI Red Line)을 최초로 법제화했다. 이는 대형언어모델(LLM)을 이용한 설교 자동 생성이나 AI 생성 가상 성직자 설교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 시기에는 ‘스마트 종교 관리’의 일상화도 완성되었다. CCTV 영상의 AI 분석, 성직자·신도 데이터베이스의 공안 시스템 연계, 온라인 콘텐츠 실시간 모니터링, 성직자의 현금 이상 이동에 대한 사전 승인제, 종교 단체 은행 계좌의 종교사무국 연계가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성직자의 설교 내용, 해외 방문 기록, 외국인 접촉 빈도 등도 모두 기록되어 ‘신뢰도 점수’로 환산된다. 플랫폼의 종교 관련 게시물·댓글·라이브가 실시간 수집·분석되어 ‘민감 정보’가 자동 차단·신고된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은 키워드 필터링, 의미 분석, 이미지 인식을 결합한다. 이는 전통적인 법적 처벌을 넘어 ‘행위 조정’과 ‘자기검열’을 유도하는 통치 기술이다.

4. 향후 전망: 네 가지 시나리오

- 시나리오 1—현상 유지(가능성: 가장 높음): 시진핑 장기집권 지속 시 현 기조 유지. 하위 규정 세분화, AI 기반 감시 심화, 종교 자율 공간 점진적 축소. 18세 미만 종교활동 제한이 21세 미만으로 확대될 수 있음
 - 시나리오 2—점진적 완화(가능성: 낮음): 경제 둔화·사회 불만 누적 시 온라인 예배 제한적 허용·가정교회 선별적 묵인 가능. 시진핑 집권 중에는 가능성 낮음. 시진핑 이후 정권 교체 시에만 현실화 가능
 - 시나리오 3—추가 강화(가능성: 중간): 대만 위기·미중 충돌 등 위기 시 사회신용과 종교 데이터베이스 완전 연계, 경전 내용 직접 수정 시도 가능. 국제 반발 강화 예상
 - 시나리오 4—체제 위기와 급격한 변화(가능성: 낮으나 영향 큼): 소련 붕괴 후 정교회 부활처럼 정치 변동 시 종교가 재조직화의 핵심이 될 수 있으나, 중국공산당의 높은 체제 회복력으로 가능성은 낮음
- 종합 전망: 시나리오 1에 시나리오 3 요소가 부분적으로 결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시진핑 집권 지속 시 종교정책의 근본 기조—당의 절대 영도, 종교의 체제 내 포섭—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5. 결론

시진핑 시대 종교정책은 마오 시대의 ‘소거’도, 개혁개방 시대의 ‘관용’도 아닌 제3의 길—종교의 포섭·변형을 통한 체제 강화—을 추구한다. ‘통일전선(포섭의 전략적 틀)’, ‘국가안전관(개입의 안보적 정당화)’, ‘통치 현대화(제도·기술적 실행 조건)’, ‘이데올로기 안전(종교 내용의 이념적 경계 설정)’이 결합하여 ‘흡수적 권위주의’ 모델을 구성한다.

‘종교중국화’는 문화적 적응이 아니라 통일전선 전략의 심화 단계다. ‘종교중국화’는 흔히 기독교의 문화적 토착화 혹은 민족화 정책으로 오해되지만, 중국 내부 담론에서 이는 ‘통일전선’ 전략의 심화한 형태로 이해된다. ‘통일전선’은 전통적으로 공산당 외부 세력을 적으로 제거하기보다, 정치적으로 무력화된 상태로 체제 내부에 편입시키는 통치 기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종교중국화’는 종교의 존속을 허용하는 대신, 그 초월적 기준과 해석 권위를 국가 이념 질서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종교를 단순히 억압하는 고전적 권위주의 모델과 구별되는 지점이며, 본 연구가 제시하는 ‘흡수적 권위주의’ 개념의 핵심적 실증 사례라 할 수 있다. 종교의 초월적 권위를 국가 이념 질서 내부로 포섭하여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는 정치신학적 기획이며, 2018년 이후의 법제화·디지털화·조직 침투는 경제 중심에서 이념·안보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반영한다.

중국은 종교를 소거하지 않고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음을, 억압과 포섭의 결합이 장기 관리를 가능하게 함을, 디지털 기술이 이 과정을 극적으로 효율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정책은 국가 권력과 종교, 기술과 신앙, 통제와 자유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21세기의 최전선이다. 이를 분별하는 것은 단지 중국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권위주의·디지털 통제·보편 인권의 미래를 이해하는 것이다. 🙏

러시아 선교 현장과 북한선교

러시아의 선교지의 상황과 러시아에서의 북한 선교 사역 등에 관하여 러시아 현지에서 한인 선교사로 교회 사역을 하시는 이샤야(가명)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러시아 선교사님들과 선교현장을 위한 기도에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Q 러시아는 야로바야법(테러방지법) 제정이나 러우 전쟁 발발 등 선교 활동에 지장이 될만한 여러 이슈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최근 러시아 선교지 상황은 어떠한가요?

A 러시아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사역하는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테러방지법이 시행되었을 때에는 분명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법 시행 직후에는 해당 법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여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만 법이 시행된지 10여 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는 교회들도 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가 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의 경우 한국이 대러제재에 동참하였고 러시아도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SWIFT(국제금융결제망) 제재입니다. 이 때문에 카드 사용도 어렵고 송금을 하더라도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교비를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항 항공편이 없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러시아에서 안정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현지 법을 잘 알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떤 법이 제정되어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법을 잘 몰라서 준비를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새로 제정되기도 하고 개정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변화를 잘 대처해야 합니다.

Q 러시아의 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선교와 관련된 러시아의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먼저 교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에서 교회 사역을 하려면 러시아 현지 사람들 10여 명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가 영주권이 있으면 그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대표도 될 수 있습니다. 한인들이 영주권을 받기 어려운 지역도 있는데, 연해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국 선교사의 영주권 취득이 용이한 편입니다. 그렇게 교회 등록을 하면 주기적으로 교회 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전에는 이러한 서류 준비가 힘든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교회 등록 관련 법적인 사항과 함께 테러방지법에 따라 지켜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불온문서에 대한 규정입니다. 러시아에서는 교회에서 이용하는 전도지나 성경책 등 문서와 자료에 등록된 교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지나 성경책, 그 외 도서 같은 것을 사게 되면 반드시 교회 직인을 찍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 자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쓰는 도서나 자료인지 확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된 도장이 없는 서적은 불온서적이 됩니다. 법의 취지는 아마도 테러 세력의 빠른 살포 등의 활동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Q 교회 관련된 러시아 법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백광순 선교사님과 박태연 선교사님이 억류중이신데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A 백 선교사님은 억류 3년 차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재판할 하지 않고 구류가 길어지고 있는데, 저도 법을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 안에 재판이 열려야 하고 벌금이면 벌금, 실형이면 실형으로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번 억류가 단순한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 선교사님의 경우 1월에 붙잡혀 만 5개월 넘어가는데 곧 재판이 열린다는

소식만 있고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은 아직은 몇 개월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국가 간 문제가 엮여 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분이 현재 수감된 곳이 외국인 수용소라서 그래도 외부와의 연락도 가능하고 타 구치소에 비해 여건이 조금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백 선교사님의 경우는 간첩죄로, 이번에 억류되신 박 선교사님은 불법 이주(체류)조직 관련으로 한국인의 러시아 입국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저는 외부인으로서 이분들의 구체적인 혐의 사항이나 법을 어긴 지점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각각의 혐의 내용이 러시아에서 상당히 주의해야 하는 점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백 선교사님의 경우 간첩죄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관계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외교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러시아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종교법이나 이민법은 그래도 내용을 알지만 간첩법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에 영사관에서 기차역, 항구, 공항 등의 사진을 찍지 말라고 문자가 옵니다. 간첩 혐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항만 해도 군함들이 자주 정박합니다. 그런데 무심결에 멋진 군함이라고 사진을 찍고 그러면 진짜 민감한 사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박 선교사님의 경우 불법 이주 관련 사항은 이민법과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러시아 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러시아에서 입국 후 7영업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반드시 그 안에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지를 등록하였으면 등록된 장소에서 살아야 합니다. 종종 등록은 특정 장소에다 해놓았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 다른 곳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민법을 어기게 됩니다. 등록 안 된 사람을 집에 머물게 했어도 문제가 됩니다. 또 러시아는 집의 면적에 따라서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됩니다. 한 사람당 최소 얼마간의 공간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의 면적에 따라 등록해 주고 싶어도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집주인인 러시아 사람이 등록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거주지 등록에는 임시 거주 허가(3년 이내)와 장기 거주 허가 있는데, 이 중 장기 거주 등록은 집주인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등록을 거부하는 집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선교사들이 주변에 아는 다른 선교사님들께 부탁하기 쉬운데, 이런 과정에서 이민법 위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국에서는 이상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지 법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Q 박태연 선교사 억류와 관련해서 러시아 언론이나 교육 당국 문서에는 아동에 대한 세뇌 혐의 등이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 러시아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 사역을 상당히 까다롭게 규제합니다. 16세 이하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찰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아이들의 부모가 동의서에 싸인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모임 영상 등에서 보이는 아이들이 모이려면 그런 근거가 있기는 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혹시나 준비가 미흡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백광순 선교사님의 경우 탈북을 지원한 것이 억류에 이유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러시아에서의 탈북 활동은 주로 유엔난민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북 관련 사역이 러시아 법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련된 위협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한국 사람 입장에서 북한 사람과 어디까지 접촉해도 괜찮은지 등에 관한 러시아의 법률이나 관련 규정이 있는지 생각해 볼 때, 특정 규정이나 법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를 한국으로 탈출시키는 사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러시아 법에 저촉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탈북을 한 북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집에 머물게 하면 불법이 됩니다. 러시아 법상으로는 여권도 없는 사람, 등록이 안 된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민법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종종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여권 확인입니다. 그런 만큼 집주인인 당신은 왜 여권도 없는 사람 데리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영



〈1996년 10월 5일 김포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보스토크 최덕근 영사의 유해〉

주권을 뺏기고 추방당해서 5년 이상 러시아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피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시도가 잦아지면 그 사실을 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탈북자를 남한으로 보낸다고 하면 북한이 당연히 크게 반발할 것입니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입니다. 90년대에는 연해주에서 한국으로 간 탈북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이국땅 러시아에서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다보니 아무래도 한인 선교사님들께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

데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근무하시던 최 모 영사님이 피살당하신 사건이 발생했는데,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건 이후에 영사관에서 선교사들을 불러서 ‘목사님들은 목사님 본연의 일만 하시지요’ 하고 자제를 권하셨던 일도 있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연해주 지역은 북한과 인접해 있는 지역인 만큼 북한 선교에도 중요한 지역일텐데, 최근 러시아에서의 북한선교사역은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A 한편으로는 사역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러우 전쟁과 코로나19 이전에는 북한 분들을 접촉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습니다. 러시아 현지인들과 협력해서 북한 노동자들 중에 추가적인 일거리를 원하는 분들을 찾아서 일을 맡기면서 그분들과 소통할 기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전에 그렇게 북한 분들을 종종 만났고 상당 기간 관계를 가지며 사역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북러 관계가 상당히 긴밀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과의 접촉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가 대 국가,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특정 사업장이나 공장 등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추가 벌이를 위한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노동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이 싹트고 있습니다. 러시아 안에서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북한을 마음에 품은 러시아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광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넘어서 조선말을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적으로 북한에 체류하면서 인도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 북한 선교는 우리 한국인들만의 선교가 아님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에 최대한 저촉되지 않으면서 위험이 적은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목회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이런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개인 자격으로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북한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면서 좋은 관계성을 세워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한 영혼을 기대하며 사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역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외에도 인도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식량이나 의약품 등을 러시아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는 일 등은 비교적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여하튼 과거에 했던 사역 방식 중 상당수가 현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선교현장을 위한 기도제목을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선교사님들의 잇따른 체포로 러시아 선교 현장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이유로 체포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걸릴 수 있다는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또 조심해야 하는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일로 러시아에서의 선교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관심 있는 분들을 잘 상대하고 도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근래에 북한에 대한 비전을 가진 분들이 종종 연해주에 방문하십니다. 이런 분들 중에 현지 선교사님들께 사역을 위해 이런저런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내용이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수년 전과 지금은 분명 다른 상황이고 사역의 영역이 상당히 축소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이 지금은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갑자기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같이 하자, 도와달라 라고 하시면 호응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의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준비 과정 없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사역을 문이 다시금 넓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하고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끝) 🙏

탈북민 수기: 김정직 목사

제 7화

화장실에 갔다가 만난 권 집사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문 목사님에게는 말하지 말고 나와 나만 아는 이야기로 하자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자초지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북라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중, 김익두 목사의 손자라는 것을 알게 된 한국 목사님들이 아버지의 한국행을 추진하셨고, 북경에 사시면서 북한 선교를 하시던 김동식 목사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의 일을 도와드리며 북경에 머물게 됩니다. 아버지는 중국어를 하실 줄도 모르고 중국 돈을 쓰는 법도 모르셨기 때문에 북라고 교회에서 아버지를 형제처럼 챙기던 권 집사가 북경까지 동행해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대사관을 통해 한국으로 가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던 중, 김동식 목사님의 집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목사님도 연변으로 출장을 가시게 되면서 아버지께서 머무실 곳이 마땅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아버지에게 대사관을 통해 한국으로 가게 되면 다시 중국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 참에 중국을 둘러보라고 하시며 경비로 5천 위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에야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행을 하게 되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중국

을 방문할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다시 중국을 방문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함께 중국 이곳 저곳을 둘러보시다가 동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교롭게도 아버지께서 공안에 잡히셨고, 안타깝게도 북송되고 마셨습니다.

권 집사는 당시 여행 경비 5천 위안 중 2천 위안 정도를 썼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말하신 돈이 그 남은 돈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권 집사에게 그 남은 3천 위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권 집사는 문 목사님이 사역을 위해 필요한 오토바이를 사주셨는데, 그 오토바이 증명서를 떼고 등록을 하는 등 경비가 소요되어서 남은 돈 3천 위안을 다 썼고 지금은 남은 금액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가 찼지만 이미 없는 돈이라고 하니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솔직하게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목사님에게는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도 알겠다고 하며 약속을 지켰습니다. 돈의 행방은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새 옷들은 어디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옷 이야기를 꺼내자 권 집사는

자신을 따라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창고에서 중고 옷을 잔뜩 내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새 옷이라고 하셨는데 그가 내놓은 옷들은 다 헌 옷들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나왔던 목적은 아버지가 남기신 돈과 옷을 찾는 것이었는데, 권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 결국 기대했던 것들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빈 손으로 북한에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문 목사님은 저와 친구를 데리고 성경통독과 제자훈련, 기도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어느 날은 목사님과 함께 산속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곳에서 주여 삼창을 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던 우리를 본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가만히 있지 말고 본인을 따라 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처음 보고 49호 정신병자라고 생각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따라 하라고 하시니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웃는 우리를 혼내셨습니다. 애가 타게 우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시키고 싶어 하셨던 목사님의 마음이 지금은 절실히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저 시키니까 따라하는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으며, 또 무엇을 가지고 북한에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며 그렇게 두 달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문 목사님께서 저를 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있다며 저를 목단강으로 부르셨습니다. 알려주신 곳에 가보니 거기에는 다섯 분의 어른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그중 한 분은 문 목

사님의 친구이신 장 목사님이셨는데,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역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 분의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백두산 관광을 오셨다가, 문 목사님으로부터 김익두 목사의 증손주가 중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관광을 다 마친 후에 다른 일행은 먼저 미국으로 돌려보내시고 홀로 목단강으로 저를 만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장 목사님은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나셨고 17살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김익두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교회를 출석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젊은 한국 선교사님이셨는데 심양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선교지 방문을 위해 캐리어 한가득 옷을 채워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시며 안타까운 얼굴로 저를 보시더니 저를 돕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장로님 부부는 본인들이 입고 돌아갈 옷만 빼놓고 나머지 옷가지를 전부 다 기부하셨습니다. 장 목사님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던 700달러를 내놓으셨고 다른 분들도 조금씩 현금을 하시어 천 달러와 중국 돈 800위안이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 환율로 100달러는 북한 돈 23,000원 상당이었는데 북한에서 최고로 비싼 가전인 텔레비전이 6,000원 할 때였으니 1,000달러는 친구와 나눠 가진다고 해도 상당한 돈이었습니다. 북한에 가지고 갈 돈과 물자를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손님들이 다 떠나시고 난 후, 저는 문 목사님께 돈과 옷가지를 들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목사님께서도 준비가 되었으면 조심히 들어가라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친구와 함께 짐을 챙겨 도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강을 넘어야 하는데 3일 동안 거센 비가 쏟아져 강을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도문의 여관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랑 친구는 돈이 있으니 돌아가기 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자 북한으로 넘어가기 위해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밭줄로 서로의 허리를 동이고, 짐은 손 위로 올려 지고 아슬아슬하게 두만강을 건넌습니다. 그런데 재수 없게도 강을 건너자마자 국경 경비대에게 딱 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명의 군인이 경비를 서다가 우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맥없이 잡혀갈 수 없어 돈을 줄 테니 한 번만 모르는 척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챙겨갔던 술과 빵, 떡 같은 것들도 내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저희가 가지고 간 술과 떡을 먹으면서도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며 뇌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저희를 잡아갔습니다. 이유인즉슨, 자신들이 세 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명이면 고발했을 때 누가 고발했는지 특정할 수 있어서 조심하여 비밀유지가 잘 되지만, 세 명이 뇌물을 나눠 받으면 누구 한 명이 다른 사람을 고발해도 정확히 누가 고발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보위부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돈을 빼앗긴 것도 분했지만, 무엇보다 겨우 석 달 전에 탈출했던 도 집결소로 다시 수감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를 잡으려고 그 난리를 피웠던 곳으로 다시 가게 되면 제 목숨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 말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 사진까지 받아 갔는데, 저를 놓쳤던 그 대위 계급의 간부를 비롯하여 그들이 저를 가만 둘리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 집결소로 수송이 되기 전에 튀어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온성 보위부에서 친구와 함께 다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온성 보위부에서 강제노동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해 뼈쩍 말라 벽돌을 나를 힘이 없었지만, 저와 친구는 중국에서 몸보신을 제대로 해왔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벽돌을 열 장씩밖에 돌려메지 못하는 것을 저희는 서른 장씩 매고 뛰어 나르니 감독관들이 보고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리고는 “야, 너네는 이제 됐으니 저기 가서 쉬어.”라며 다른 사람들이 일을 끝낼 동안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혀온 지 일주일 만에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쫓아오는 보위부원들을 피해 친구는 강냉이밭으로 숨었지만 저는 콩밭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강냉이밭은 옥수수가 높게 자라 몸을 숨기기는 쉽지만, 오히려 망대를 높게 세워놔기 때문에 금방 들키리라 생각해서 망대가 없는 콩밭으로 숨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계획은 오산이었습니다. 강냉이밭으로 들어간 친구는 성공적으로 도망갔지만 저는 붙잡혀 다시 보위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붙잡힌 저는 앞이 캄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탈출 시도도 수포로 돌아가고 나니 더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보위부로 다시 붙잡혀 돌아와 얻어맞으며 이제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다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뒤에 기차를 통해 청진 도 집결소로 수송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걸음걸음 내딛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중국에서 들었던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도 집결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천사들을 통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집결소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날에는 저는 죽습니다. 그들이 제발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는 집결소로 가는 내내 앉으나 걸으나 이 기도만 계속해서 반복하였습니다.

저희 무리는 한밤중이 돼서야 청진 집결소에 도착했습니다. 죄수들을 세워놓고 수감소 규칙을 알려준 후에 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속 속으로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 못 보게 해주시옵소

서.’ 하며 간절히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음식 같지도 않은 것을 아침밥으로 먹었습니다. 벌레가 바글바글 붙어 있는 배추와 강냉이를 섞어 만든 죽이었는데, 개도 먹지 않을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그걸 먹지 않으면 다른 음식이 없었기에 억지로 그것을 뱃속에 집어넣고 노동을 나갔습니다. 누구라도 나를 알아볼까 싶어 고개를 꼭 숙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날 외부 작업을 나갈 남자를 서른 명 뽑았는데, 제가 딱 뽑혀 버렸습니다. 인솔자와 함께 트럭을 타고 외부로 나가야 했는데 그 인솔자가 바로 3개월 전 저를 잡으려고 우리 집에 와서 사진을 받아간 그 대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니 어깨의 별이 하나 줄어 대위에서 상위로 강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저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때 탈출한 저 때문에 처벌을 받아 계급이 강등된 것이 아닐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진급도 어려운데 심지어 강등이 되어 버렸으니 그가 나를 알아보면 나를 죽이려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외부 작업에 나가는 트럭을 운전하는 트럭 기사는 저희 고향 동네에서 안면이 있던 안전원으로, 제가 3개월 전 집결소로 끌려왔을 때도 같은 동네 사람이라며 잘 챙겨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저는 정말 앞이 새하얘지며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작업장에 도착해서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 앞을 지나칠 때면 고개를 더욱 꼭 숙이고 재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외치며 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녁이 되고 작업을 마치기까지 그들은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혹시나 탈출을 시도할까 싶어 자

극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집결소 마당으로 돌아와 한 명씩 검사를 하는데, 그때에도 그 간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날 저녁 감방에 들어가 온 밤을 하나님께 눈물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를 죽을 고비에서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외치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 가득히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무지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이 감옥에서 제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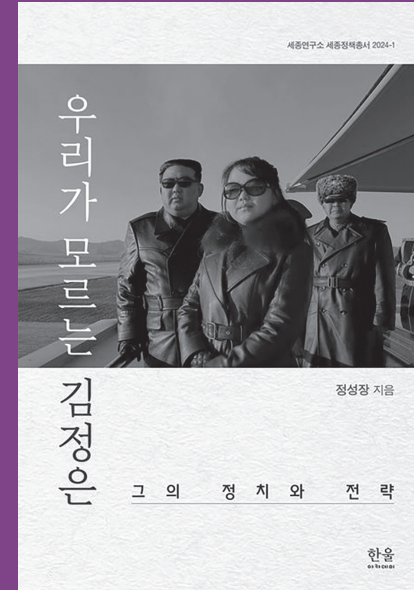
십시오. 제가 여기서 나간다면 이제 저는 그 성소에 다시 돌아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한 뒤, 환청이었는지 주님의 음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감동이 마음에 솟아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만약 제가 잡히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 돈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들고 왔던 돈을 굴려 장사를 해보겠다고 설치됐겠지요. 어찌저찌 생활은 했겠지만,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강을 건너다 붙잡혀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 오히려 저를 하나님께로 가까이하게 만드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계속)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 그의 정치와 전략

저 자: 정성장

출판사: 한울엠플러스(주)

발행일: 2024년 12월 30일

가 격: 29,800원

북한은 최고지도자를 절대시하는 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와 그 후계자에 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폐쇄적이고 정보가 제한적인 북한의 특성에 더해 최고지도자에 관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을 때가 많다. 예를 들어 김정은의 이름도 최초에는 ‘김정운’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김주애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도 비슷한 해프닝이 있었다. 특히 김정은에게 김주애 위에 아들이 있다고 확실시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아들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이렇듯 해당 영역의 정보가 제한적이고 틀린 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하다.

오늘 소개할 책,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 그의 정치와 전략”은 이러한 측면에서 김정은에 대한 정보들을 세부적으로 검증, 분석하여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김정은의 성장에서부터 후계 체제가 출범되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한다. 더 나아가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 즉 공포정치적인 모습이나 인사 관리, 정책 결정 방식, 그리고 김정은의 통치에 빼놓을 수 없는 김정은의 정치 담론과 핵 무력 증강, 외교 정책 등을 살펴본다. 이어 다음 후계자로 거론되는 김주애에 관하여 살펴본 후, 앞으

로 김정은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저자의 제안을 마지막으로 담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그간 세간에 떠도는 김정은과 김주애에 관한 다양한 속설과 정보들에 대해 여러 자료를 통해 비교분석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여전히 각종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 김정은에 대하여 잘못 알려져 있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정리함으로써 이를 통해 김정은과 북한 체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부정확한 이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이와 함께 저자는 김정은의 통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분석도 담았다. 대표적인 예가 김정일의 인사 스타일을 ‘영화감독’에, 김정은의 스타일을 ‘농구감독’에 비유한 점이다. 과거 김정일은 충성심이 검증된 고위 간부의 직책을 사망할 때까지 보장하는, 즉 배우를 중간에 바꾸지 않는 ‘영화감독’ 스타일의 보수적인 인사를 보여주었다. 반면 김정은은 특정 간부가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 곧바로 강등하거나 해임하는 등, 수시로 선수를 교체하는 ‘농구감독’ 스타일의 인사를 펼치고 있다. 과거 김정일식 인사에 익숙했던 탓에 김정은은 시대 초기 잦은 인사 변동을 일각에서 ‘숙청’으로 잘못 해석했던 점을 떠올려 보면, 선대와 차별화되는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에 관한 저자의 설명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개인적으로 인상깊었던 점은, 저자가 책의 말미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남한의 핵보유 필요성을 주장한 부분이었다. 단순히 ‘북한에 핵이 있으니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차원의 주장이 아니라, 김정은의 통치 전략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의 선행을 바꾸는 주요한 카드로서 ‘남북한 간의 핵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비록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찬반이 팽팽한 이슈이지만, 분석적이고 짜임새 있는 저자의 논지를 따라가다 보면 핵보유의 필요성을 또 다른 측면에서 깊이 고민해보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과 후계자로 거론되는 김주애, 그리고 그들의 정책 결정 방식과 배경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그렇지만 제한된 정보 속에서도 가능한 최선의 검증과 분석을 시도할 때 우리는 북한의 본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전략을 이해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전망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줄 책으로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 그의 정치와 전략’을 추천한다. 🐼

북중 정상회담 개최... 전략협력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北비핵화 언급은 없어



〈6월 8일, 평양체육관에서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영하는 공연을 관람하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8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 협력 강화와 교류 확대에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회담을 열고 주권·안전·발전이익 수호와 전략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북중 관계를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전략사업’으로 규정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를 재확인했고, 시 주석은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다.

두 정상은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시 주석은 북중 관계 발전 방안으로 고위급 교류 강화, 실질 협력 확대, 전통 우호 계승, 전략 협력 심화 등 4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경제·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보건 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통과 민항 노선,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왕래를 늘리자

고 제안했다. 또 외교·법집행·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언론·청년·지방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지난해 9월 베이징 회동 이후 양국 관계가 각 분야에서 활발히 발전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무역, 인프라, 과학기술, 교육, 인문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당 대 당 채널을 통한 경험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담 결과에는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양국 정상은 주권·안전·발전이익 수호와 전략 협력 강화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노선을 공식화한 가운데 중국의 외교 초점도 한반도 비핵화 보다는 전략적 협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참고: 연합뉴스, 6월 8, 9일) 🐼

트럼프, SNS에 북미정상회담 사진 올려... 배경에 관심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1차 북미회담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3일(현지시간) 8년 전 이맘때 열렸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1차 북미정상회담 때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사진 설명을 포함한 일체의 첨부 없이 김 위원장과 자신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올렸다. 사진은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회담장인 카펠라호텔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다.

제1차 북미정상회담 8주년이 막 지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진을 올린 배경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부 이행 방안을 합의하기 위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해 재선에 실패하면서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는 사실상 표류했고, 북한은 이후 핵무력 증강의 길로 내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북미정상회담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은 김 위원장과 1차 북미정상회담을 자신의 치적이자,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사진 게시 직전 이란과의 종전 및 비핵화 관련 합의에 14일 서명할 것이라는 글을 같은 SNS에 올렸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의 국정 현안인 이란전쟁이 마무리되면 대북 외교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사진을 올린 것은 자신이라고 말하며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참고: 연합뉴스 외 언론보도 종합) 🐼

김정은, 당 전원회의서 ‘핵무력 강화’ 강조... 한국 적대시 정책 재확인



북한이 6월 20일부터 제9차 노동당 대회 결정사항의 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핵무력 강화'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전원회의는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핵기술과 관련해 “보다 방대하고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계획들이 가속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멈춤없이,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4월 4일 결정한 1만t급 ‘전략유도탄 순양함’ 건조 사업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원회의는 대외사업과 관련해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투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며 한국을 적대시하는 대외정책을 재차 공식화했다. 전원회의는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제6차 회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한미의 안보 행보를 비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남부국경요새화공사를 질적으로 완결하고 해군 함대들에 새로운 기지들을 건설”할 것 등 국가방위력 강화 대상 건설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노동당의 조직개편도 있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위원회 비서, 조직지도부장이었던 김재룡이 직무에서 일괄 해임되고 조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됐다. 김재룡의 해임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박희철 소장을 부정부패혐의로 법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고 공개해 조직관리 부실의 책임을 묻은 인사조치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분야 핵심 과제로 석탄공업 활성화를 꼽고, 내년부터 전국의 탄광마을 살림집(주택)을 현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참고: 연합뉴스, 6월 23일) 🐼

1 선교 현장이 변화하는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월 8~9일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외교·법집행·군대 등 분야의 교류 강화, 발전 전략 연계 및 실질 협력 확대,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통 및 인적 교류 확대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북중 간 협력 강화와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선교의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하는 가운데, 법 집행(치안) 분야의 교류 강화 등이 탈북자 사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이 북한 선교의 문이 넓혀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안전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과 주변국 간의 밀착 관계 속에서 선교 현장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종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 내 체류하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디지털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북중 국경을 방문하는 여행팀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러시아는 탈북자 사역을 하던 백 모 선교사님을 억류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박 모 선교사님을 체포하여 억류하면서 선교 현장의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선의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특히 갇힌 선교사님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3 해외 북한 선교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기도합니다. 6년간 중단되었던 베이징-평양 여객열차 운행이 3월 12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경통상구 전면 개방 및 인적 교류 확대가 합의되었습니다. 중국발 북한 관광도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공공 얼어붙었던 북한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중·러 협력이 더 많은 북한 출신 영혼들과의 접촉점 확대로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접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헌법에는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하는 영토조항이 신설되고 통일 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등 ‘두 국가’ 노선이 반영되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국무위원에게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을 명기하고 명목상의 견제 사항마저 폐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헌법 개정 내용을 살펴볼 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도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북핵 문제가 평화적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갇혀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 한총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던 장백의 장문석 집사님께서 12년 만에 풀려나셔서 중국으로 귀환하신 소식은 우리에게 옥중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여전히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 등이 억류 중이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지하 교회 성도와 강제 북송 탈북 여성 신자가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수용소에 갇힌 성도와 억류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연좌제로 인해 처벌 및 추방을 당한 지하 교회 성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되어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기정사실화 되는 북한의 4대 세습, 그리고 핵 무력을 다음 세대로까지 전수하려는 북한의 모습은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40대 초반에 불과한 김정은이 아직 10대 초반의 딸에게 후계 수업을 하는 상황 이면에 자리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살길은 권력의 세습이 아닌 회개와 변화일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든, 북한이 권력 세습에 집착하기보다 회개를 통한 변화를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7 현장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근래에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북한 여성들의 소식이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가 밀접해지는 가운데 붙잡힌 여성들이 북송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교사나 사역자들이 입국 거부나 추방을 당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여성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여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악한 계획이 무산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사역을 이어가고, 이를 위한 창의적인 사역 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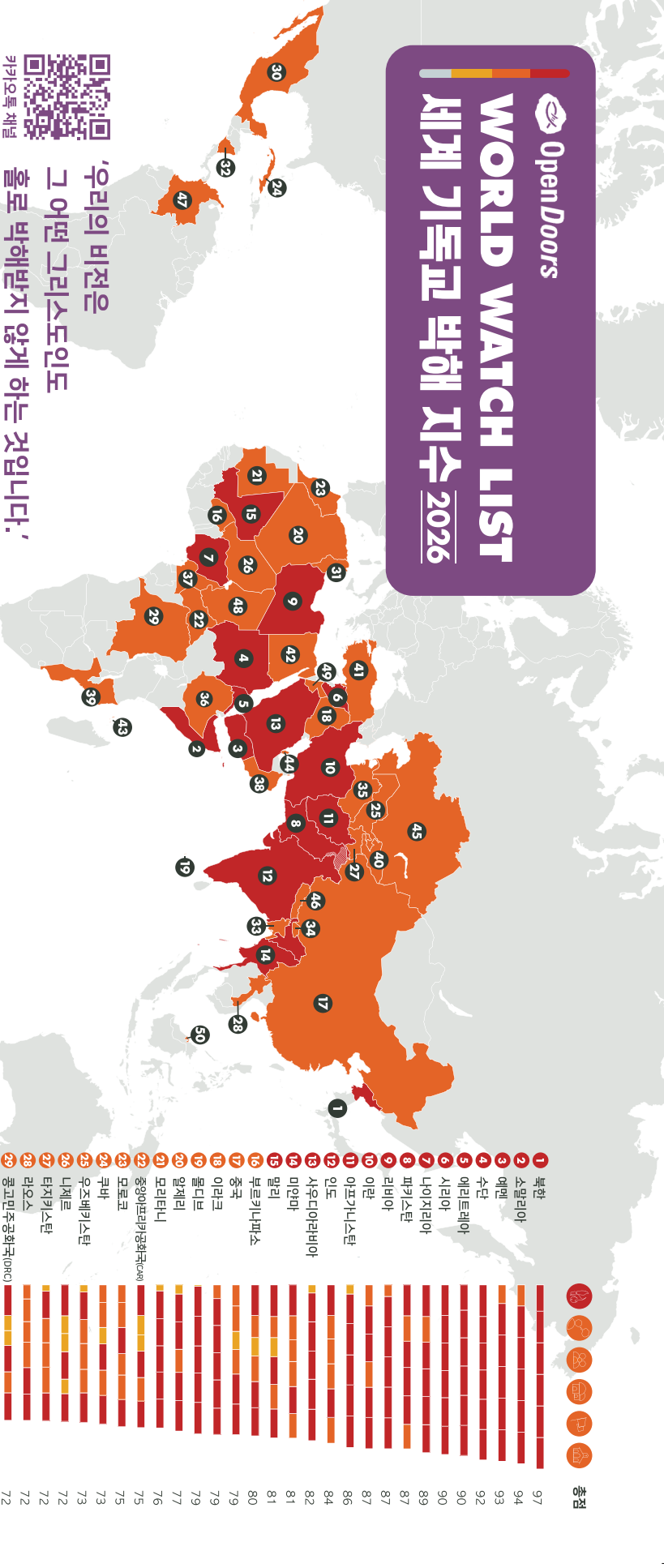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6년 6월 30일

OpenDoors WORLD WATCH LIST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2026



‘우리의 비전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홀로 박해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국가 목록에 대해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는 오픈도어의 분석가들이 150개국 현지 전문가들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각 국가의 박해 상황은 폭력과 압박을 추적하는 점수 시스템을 통해 기록된다. 이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사건의 수와 심각성, 그리고 신앙 생활의 5개 영역에서 박해의 정도를 측정한다.

폭력 개인 생활 가족 생활 공동체 생활 국가 생활 교회 생활



각 항목의 최대 점수는 16.7점이며, 이를 모두 합산했을 때 총 최대 점수는 100점이다.

각 국가의 순위는 100점 만점 중 해당 국가의 총점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박해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박해 정도

● 높음 ● 매우 높음 ● 극심함
41-60점 61-80점 81-100점

목록에 포함된 모든 국가는 기독교 박해 수준이 '매우 높음' 또는 '극심함' 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 내 기독교인들이 겪는 박해의 강도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



=

순위

순위	국가	점수
1	북한	97
2	소말리아	94
3	예멘	93
4	수단	92
5	에리트레아	90
6	시리아	89
7	니제르	87
8	파키스탄	86
9	리비아	84
10	이란	82
11	아프가니스탄	81
12	인도	80
13	사우디아라비아	79
14	미얀마	77
15	말리	76
16	부르키나파소	75
17	중국	73
18	이라크	72
19	몰디브	72
20	알제리	72
21	모리타니	72
22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72
23	모로코	72
24	쿠바	72
25	우즈베키스탄	72
26	니제르	72
27	타지키스탄	72
28	라오스	72
29	몽고민주공화국(DRC)	72
30	멕시코	71
31	튀니지	71
32	니카라과	71
33	방글라데시	71
34	부탄	71
35	투르크메니스탄	71
36	에티오피아	70
37	카메룬	70
38	오만	69
39	모잠비크	68
40	키르기스스탄	68
41	튀르키예	68
42	이집트	68
43	코모로	68
44	카타르	67
45	키르기스스탄	67
46	네팔	67
47	콜롬비아	66
48	체코	66
49	요르단	65
50	브루나이	65